



보도자료



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보다 나은 정부
평등을 일상으로

보도일시	2019. 11. 25.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 : 2019. 11. 24.(일) 오후 12:00 이후		총 5쪽 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시	2019. 11. 22.(금)		
담당부서	여성가족부	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	노현서 과 장(02-2100-6371) 황별이 서기관(02-2100-6372) 나주희 주무관(02-2100-6373)
	한국건강가정진흥원	인식개선사업부	허지은 부 장(02-3479-7770)

포용과 화합의 ‘다문화사회’ 를 이야기한다.

-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, 여성가족부 26일(화), 아세안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연대회의 개최 -

< 다문화가족 정착 사례 >

- 오○○씨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후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'찌엠봉사단'을 결성하였다. 이를 통해 베트남 이주여성의 한국어통역지원, 한국생활 및 문화에 대한 정보제공 등 자국민 출신 도움활동 위주에서 타국 결혼이주여성, 한국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 활동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.
- 박○○씨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자녀와의 소통도 잘 안 되는 막막한 환경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배움의 길을 찾게 되었다. 경산시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'다문화엄마학교'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, 매주 평가를 거쳐 초등교 6년의 교과과정을 6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. 배움을 통해 자녀에게 제대로 된 가정학습을 지도할 수 있어 자신감도 생기고 자녀와의 관계도 돈독해졌다.
- 박○○군은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이다.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, 진로선택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폴리텍 다솜고등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노력한 결과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. 그는 폴리텍 다솜고등학교에서 공기업에 입사한 최초의 졸업생이다.

- 여성가족부(장관 이정옥)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사장 김혜영)은 11월 26일(화) 오후 2시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(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)에서 '다문화가족 한국 정착 10여년, 새로운 도전과 과제'를 주제로 다문화가족 연대회의(이하 '연대회의')를 개최한다.
 - 연대회의는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다문화가족과 학계 등 전문가,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및 다문화가족의 우수정착 사례 등을 공유하며 '발전적인 다문화사회 미래상'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-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,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양한 이민자들과 소통하는 사전간담회를 갖는다.
 - 이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, 다문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본다.
- 연대회의는 1, 2부로 진행되며, 1부에서는 '다양한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성공사례'에 대해 이야기한다.
 - 먼저,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'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의 과거와 현재, 미래 전망'에 대해 발표한다.
 -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하고, 다문화가족이 재능과 강점을 발휘하여 우리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.
 - 이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사례를 이야기한다.
 - '다문화 엄마학교'를 통해 한국어 습득과 자녀 교육이 가능했던 캄보디아 출신 박○○씨, 자조모임을 통해 농촌 일손 돕기, 어르신 무료급식소 지원 등 지역에 봉사하는 베트남 출신 오○○씨 사례와,

- 기술인재로 다양한 활동과 철저한 준비 끝에 공기업 취업에 성공한 박○○군(20세)의 이야기 등을 공유하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한다.
 - 또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한 현장전문가의 이야기가 이어진다.
 -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지사전교육 활동으로 결혼이민자 한국 조기정착에 기여한 사례, 결혼이주여성이 주도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 사례 등이 소개된다.
- 2부에는 결혼이민자,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직접 참여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 등을 위해 구성된 ‘다문화가족 참여회의’가 열린다.
- 2015년 12월 최초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은 초기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되었으나, 그동안 다양한 성별과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왔다.
 - 이날 회의에는 캄보디아 출신 당구 여제 스롱피아비, 네팔 출신 1호 한국 의사 남성 결혼이민자 정제한, 학생회장 출신으로 취업에 성공한 청소년 정재호 군 등 16명이 참여한다.
 - ‘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 지원’을 주제로 다문화가족이 사회·구조적인 장벽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, 자녀양육, 사회진출에 이르는 과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.
 - 또한, 부대행사로 다문화 소개 및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홍보, 아세안 문화 정보 안내 등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응원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.
-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다문화가족 연대회의가 다문화가족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, 포용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.”라면서

- “다문화가족이 글로벌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고, ‘다양성’과 ‘역량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다문화가족 연대회의 개요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-	--

□ **회의 개요**

- (목적)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기,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현장 활동가·전문가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공유 및 상호 협력기반 조성
- (일시) 2019. 11. 26.(화) 13:30 ~ 17:00
- (장소)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(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)
- (주제) **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 10여년, 새로운 도전과 과제**
 -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주자·자녀의 사례발표 및 사회적 차별을 넘어선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 지원방안 논의
- (참석) 다문화가족, 전문가, 현장종사자 등 100여명

□ **세부일정(안)**

시 간	시간(분)	내 용
13:30~14:00	30'	· 사전 간담회 (유학생·외국인근로자·다문화가족 등)
[1부]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성공사례, 이들은 누구인가?		
14:00~14:15	15'	· 개회식 - 개회사 (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) - 환영사 (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)
14:15~14:20	5'	· 기념촬영
14:20~14:30	10'	· 주제발표 :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의 과거와 현재, 미래전망 -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
14:30~15:00	30'	· 다문화가족의 정착 우수 사례 발표 ① 다문화 엄마학교, 졸업생 우수사례 발표 ② 자조모임 우수사례 발표 ③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졸업생의 사례 발표
15:00~15:30	30'	· 다문화가족 지원 우수 사례 발표 ① 현지사전교육 운영 우수사례(고군)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우수사례
15:30~15:50	20'	· 휴 식
[2부] 다문화가족의 공생공락 속으로		
15:50~16:50	60'	· 다문화가족 참여회의
16:50~17:00	10'	· 폐 회

※ '1부' 공개, 사전 간담회 및 2부 비공개